

# 기후변화협약 대책행사

3.23일(화)부터 4일간, 서울에서 “제5차 기후변화 협약대책 Week 행사”를 지식경제부가 개최하였다. 동 행사는 교토의정서 발효('05.2.16) 등을 계기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대응역량제고를 위해 '06년부터 실시하였고,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금년 행사는 지난해 코펜하겐 협상이후 국가간 실질적인 협의가 재개될 시점에서, 국내외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전략을 전문가,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인 입장에서 되짚어 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정관 지식경제부 자원정책실장은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은 전 인류가 변화된 의식을 바탕으로 함께 노력해 나가야 달성할 수 있는 소중한 가치”라고 말하고, 금번 행사를 통해 우리 모두가 기후변화에 대한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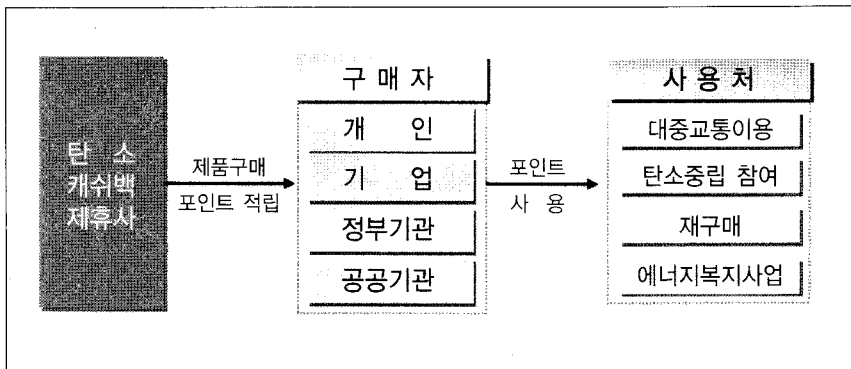
식을 새롭게 하기를 당부하였다.

개회 당일에는 강연(코펜하겐 이후의 전망)과 전문가 세미나(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특별생방송이 진행되었다.

주한 영국대사관 토니 크렘슨 기후변화팀장과 산업기술대 강승진 교수는 각각 “선진국에서 바라본 코펜하겐 이후의 온실가스 국제협상 전망”과 “개도국 및 우리가 국제협상에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강의하였다.

또한, 세미나에서는 웅진그룹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진출 및 내부 환경평가 시스템, 청정생산을 위한 환경경영(“사랑은 뜨겁게 지구는 차갑게”), 일본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정책 및 기후변화 대응정책”(메이조대 이수철 교수) 등의 발표와 함께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

특히 MBC 특별 생방송과 연계하여 COEX 광장에서 열린 이원 생중계 방송(유명 연예인 참가)에서는, 시민들에게 냉장고, 에어컨, TV 등 가전제품의 탄소 줄이기 생활실천방법, 탄소캐쉬백, 탄소중립프로그램 등에 대해 이해하기 쉽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설명하였다.



탄소캐쉬백 제도란 탄소캐쉬백카드 보유자가 에너지절약형 저탄소제품(고효율제품, 대기전력저감제품 등) 구매 또는 저탄소 실천매장을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로 판매액의 일정비율을 탄소캐쉬백 포인트로 적립, 구매자는 적립된 포인트를 제품 재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탄소중립 프로그램이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국민 참여 확대 및 자발적 감축문화 확산과 온실가스 감축실적(KCERs) 구매 등 국내탄소시장 수요창출 위해 개인 활동, 각종 행사,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CO<sub>2</sub> 배출량을 확인 후, 감축활동을 통해 최대한 줄이고, 남은 CO<sub>2</sub>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중립(상쇄)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탄소캐쉬백 홍보이벤트 행사로 학생들과 시민들이 탄소를 상징하는 대형 풍선의 바람을 빼고, 풍선속의 탄소캐쉬백 주머니를 꺼내어 캐쉬백 마크와 모형돈을 선보임으로써 “탄소를 잡으면 돈이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이번 제5차 기후변화대책 Week 행사는 산업계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에게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일깨움과 동시에 그 동안의 추진성과를 널리 알리며, 향후 기후변화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초석을 지속적으로 다져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탄소캐쉬백 제도의 세부 내용을 보면, 추진 목적에서 국민들의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인식 제고와 에너지 고효율·온실가스 저배출 제품으로의 자발적인 소비행동의 변화를 촉진·장려하고, 기후변화에 대

한 범국민 공감대 형성하는 것이다.

이 제도의 개념은 탄소캐쉬백카드 보유자가 에너지절약형 저탄소제품(고효율제품, 대기전력저감제품 등) 구매 또는 저탄소 실천매장을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로 판매액의 일정비율을 탄소캐쉬백 포인트로 적립, 구매자는 적립된 포인트를 대중교통, 제품 재구매 등에 사용한다.

현재 OK캐쉬백 카드로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웨미리마트, 파리바게트(제과점) 등 전국 4만 5천여 OK캐쉬백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대중교통에도 이용('10년 하반기)할 수 있다.

저탄소제품이란제품사용시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제품(예, 고효율 1등급 제품) 또는 생산과정에서 기존제품보다 탄소배출이 적은 것으로 인증된 제품이다.

저탄소실천매장이란매장내 탄소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저감활동(예, 조명등 일부 소등, 실내적정온도 유지 등)을 실천하는 매장이다.

운영주체 및 역할에서 주관사는 에너지관리공단이고 제휴사는 19개사이다.

대상제품은 16개 품목 152종이고, 생산 또는 소비 등 기업활동 과정에서 탄소배출감축에 기여한 제품 또는 서비스이다.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법령에 따라 저탄소상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이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서 '09년 적립실적은 11개 기업 참여, 총 30백만 포인트 적립이다. '10년 적립계획은 30개 기업(기관) 참여, 총 4억 포인트 적립 예정이다.

기 관		역 할
주관사	에너지관리공단	프로그램 운영방향 및 참여업체 선정, 포인트 활용 가이드라인 제시, 지자체 업무협력, 홍보 등
운영사	SK마케팅앤컴퍼니	탄소캐쉬백 운영시스템 구축·운영, 포인트 통합관리, 제휴사 모집·관리, 홍보 등
제휴사	19개사 (상세내용 불임 참조)	탄소캐쉬백 제품 구매 고객에게 포인트 지급